과거 극복하고 미래 나아갈 한일 관계 열어야

글로벌 에세이

최성주
원자력대학원 교수
전 주폴란드 대사

㊹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둔 한일 관계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국과 일본은 삼국시대 이래 오랫동안 다양한 교류와 협력의 역사를 써오고 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인접한 국가들은 대체로 굴곡진 과거를 경험하고 있다. 인류의 역사는 '선린(善隣)'을 행동에 옮기기가 어렵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유럽의 경우, 프랑스와 독일, 독일과 폴란드, 그리고 폴란드와 러시아 등 인접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전쟁과 평화의 시대를 거쳤다. 이 중, 프랑스와 독일은 20세기 들어 두 차례나 세계대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처절하게 무력 충돌한 아픈 과거를 간직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도 예외가 아니어서, 명암(明暗)의 역사가 교차하면서 현재에 이른다.

오늘날, 한국과 일본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와 인권이라는 4대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핵심 가치의 공유는 중요한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서도 유사한 입장(like-minded) 하에 보조를 맞춰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한일은 공히 미국의 동맹국이다. 따라서, 한일 간의 긴밀한 협력은 한·미·일 3각 협력과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기본축이다.

다시 말해, 한일 관계의 악화는 한미동맹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특히, 계속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전략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간의 안보협력이 필수불가결하다. 한·미·일은 최근 러시아·북한의 군사적 밀착심화 및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관련 중·러의 안보리 거부권 행사 등 북한·중국·러시아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지난 6월 푸틴 대통령의 방북 계기에 체결된 러·북 준(準)군사 동맹조약에 따라,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1만 명이 넘는 대규모의 지상군을 우크라이나에 파병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유럽 안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우리가 한·미·일 안보 협력, 나아가서 한·NATO 협력을 보다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 이와 아울러, 장차 중국과의 건전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한일 공조는 필요하다. 즉, 한·미·일 간의 긴밀한 3각 협력은 중국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설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한일 협력을 지속 심화해야 하지만, 양국 간에는 과거사 문제로 인해 잠재적인 긴장 요인들이 상존한다. 그런데, 진정으로 걱정스러운 것은 한일 관계를 국내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이 있다는 점이다. 최근 일본 내의 혐한(嫌韓)과 한국 내의 '반일 몰이'가 그 실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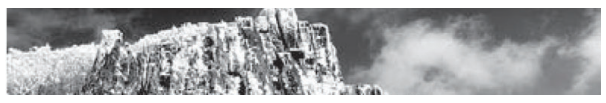
눈을 들어 세계를 바라보면, 193개 유엔 회원국 중 과거에 식민지배를 당하지 않은 나라가 거의 없다. 아시아의 일본과 태국, 그리고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와 라이베리아 정도다. 중남미 국가들의 경우, 100%가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및 프랑스 등 유럽 열강의 식민지였다. 다만, 아시아 국가 중 일본은 19세기 중반부터 사실상의 제국주의 세력으로 등장하면서, 한국 및 대만 등 이웃 국가들을 식민 지배했다. 그런데, 현재와 같은 엄중한 안보환경은 한국과 일본의 긴밀한 협력을 절실히 요구한다. 이에 비추어, 우리는 무엇보다도 과거를 대하는 마음가짐부터 바꿔야 한다. 영국의 윈스턴 처칠 총리는 "과거와 현재가 다투면, 미래를 잃게 된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한국과 일본이 과거 문제로 대결할수록, 양국이 함께 설계할 공동의 미래는 설 자리를 잃게 된다. 베트남 등 식민 지배를 당한 절대다수의 국가들은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는 실리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일 관계의 미래를 위해 정부 관료와 정치인뿐만 아니라, 기업인, 일반국민들이 함께 교류와 협력 확대에 나서야 한다.

양국의 청년세대가 과거사에 크게 얽매이지 않고 실용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스럽다. 1998년,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과 일본의 오부치 총리는 역사적인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과거를 극복하면서 미래로 나아가려는 용감한 결단이었고, 그 이후 양국 관계를 다방면에서 건설적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조성되었다.

마침, 내년은 한일 양국이 1965년에 국교를 정상화한 지 6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따라서, 2025년을 양국 관계가 일대 도약하는 원년(元年)으로 삼아야 한다. 20세기 들어 두 차례나 세계대전에 휩쓸린 프랑스와 독일(당시 서독)이 1963년 드골 대통령과 아데나워 총리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 '엘리제 조약'을 체결한 이후, 과거의 고통을 딛고 미래로 함께 나아가고 있는 점을 교훈삼아야 한다. 한국과 일본의 화해와 협력은 지역을 넘어, 세계평화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한일이 역사적 대화합(大和合)을 이루도록 여야가 초당적인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

진일보 @jnilbo 진일보 인스타그램
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뉴스서비스입니다.
한발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
Kakao Talk : 진일보
E-Mail : jebo@jnilbo.com

서석대



'바보상자'와 '뇌 썩음'

과거 초점 잃은 시선으로 멍하니 텔레비전(TV)만 쳐다보는 아이를 볼 때 부모의 속은 얼마나 타 들어갈까? 부모들은 TV를 보는 아이들에게 "TV 보면 바보 된다"고 늘 잔소리를 해댔다. TV 볼 시간에 책 한 권, 공부를 하라는 말은 레퍼토리처럼 반복했다.

그런데 요즘 생각하면 TV는 약과다. 더욱 고약한 놈(?)이 나타나서다.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TV를 보는 아이들이 사라졌다. 인스타그램 릴스나 유튜브 숏츠 등 60초 안팎의 짧은 영상을 일컫는 숏폼(short form) 콘텐츠가 쏟아지면서 손바닥만한 스마트폰에 얼굴을 파묻고 사는 아이들이 천지다. TV는 전원을 끄고 리모컨을 숨기기라도 하지만 스마트폰은 제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TV는 그나마 가족끼리 옹기종기 모여 함께 시청하며 대화를 나누는 장이라도 마련된다.

스마트폰 및 SNS 중독은 심각한 사회문제다. 오죽했으면 옥스퍼드 영어 사전을 출판하는 옥스퍼드 랭귀지가 최근 올해의 단어로 '뇌 썩음(Brain rot)'을 선정했다. 매우 과격해 보이는 단어지만 부모들 입장에서 매우 수긍하는 분위기다.

'뇌 썩음'은 주로 질 낮은 온라인 콘텐츠를 과도하게 소비해 정신적, 지적 상태가 악화한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다. '뇌 썩음'은 인터넷 발명 이전인 1854년 헨리 데이비드 소로(Henry David Thoreau)의 저서 '월든'에서 처음 등장했다. 소로는 복잡한 아이디어를 평가절하하는 사회적 풍조와 이로 인한 지적 능력 쇠퇴를 비판하기 위해 해당 단어를 사용했다. 이후 소셜 미디어 상에서 Z세대와 알파 세대들에게 유행했으나, 현재는 저품질 콘텐츠를 표현하는 용어로 자리 잡았다.

이 단어의 사용 빈도는 지난 1년간 약 230% 증가했다고 한다. 앤드루 프르지빌스키 옥스퍼드 대학교수는 "이 단어의 유행은 현재 우리가 처한 시대적 증상"이라며 "SNS에 대한 불만과 불안을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데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청소년들의 과도한 스마트폰과 SNS 사용을 막기 위해 호주 의회는 전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16세 미만은 X·페이스북·인스타그램·스냅챗·틱톡 등과 같은 SNS 계정에 접속할 수 없다. 이를 어기는 SNS 플랫폼에는 최대 450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 프랑스, 노르웨이 등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요즘엔 스마트폰에 빠진 아이들에게 차라리 TV를 보라고 한다. '바보상자'로 억울한 누명을 쓴 TV가 '뇌 썩음'을 일으키는 스마트폰 중독을 대처할 놀라운 처방이 되고 있는 시대다.

김성수 논설위원

社 說

명분도 실익도 없는 무안의 '무조건 반대'

공항이전 논의에 빠져선 안돼

광주 민간·군 공항 이전을 위한 범정부협의체 논의가 3년 여 만에 재개됐다. 범정부협의체는 국조실, 국방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으로 구성됐지만 사실상 이전 주체인 무안군이 빠지면서 아쉬움이 남는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13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광주 민·군 공항 이전 범정부협의체 논의를 진행하려 했지만 이전 후보 지역인 무안군이 참여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무안군이 최종 불참의사를 밝혔지만 협의체 실무논의는 진행할 계획이다. 국무1차장이 주관하고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전남도 행정부지사,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장,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행안부 차관보 등이 참여한다. 협의회에서는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을 조율하기 위한 방안 등이 모색된다.

정부 주도의 광주 민·군 공항 이전 논의는 지난 2021년 5월 21일 회의가 열린 이후 3년 6개월여만이다. 하지만 이전 후보지역인 무안군이 협의회에 참여하지 않아 실효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무안군의 불참은 사실상 군공항 이전 반대 의사로 읽힌다. 다만 반대의사가 분명하더라도 협의체까지 불참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행보다. '전투기 훈련으로 발생하는 소음 피해를 후세에 물려줄 수 없다'는 뜻은 알겠으나 최소한 대화마저 단절한다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대처일 수 밖에 없다.

광주 민간·군 공항 이전은 광주와 전남이 함께 고민할 핵심 현안이다. 이전지역인 무안에도 중차대한 일이다. 3년 내내 유명무실했던 범정부협의체가 이제서야 움직인다는 걸 반갑게 맞아야 할 지 웃지 못할 일이다. 범정부협의체 자체가 무안 이전을 전제로 한 논의가 불가피할텐데 무안군의 선택이 무의미하다는 인식도 크다. 압박카드로 인식하더라도 무안군은 최소한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이득은 취하면서 명분도 얻는 기회가 바로 '대화'다. 협상도 없이 반대 아닌 반대는 결코 실익이 되지 않는다. 대화를 통해 결과를 얻어야 하며, 결과 역시 무안군민의 몫이다. 판단은 대화가 끝난 후 결정해도 늦지 않다.

조류인플루엔자 민·관 선제 방역 나서야

강진서 또 다시 H5형 항원 검출

강진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또 검출됐다. 영암에서 고병원성 H5형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지 1주일 만이다. 올 들어 전국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10건, 저병원성 AI가 4931건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려스러운 일이다. 민·관이 힘을 모아 철저한 방역에 나설 때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강진 군동면의 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전날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 해당 농장은 육용오리 2만 2000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오리 폐사가 늘고 있다'는 농장주 신고로 전남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H5형 AI로 확인됐다. 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 중이다. 전남도는 신고 접수 즉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해당 농장 출입통제와 소독 등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주변 환경조사와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가금류에 높은 전염성을 갖고 있고 폐사율이 높아 위험성이 크다. 인간에게 전염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방역 여건도 좋지 않다. 방역당국도 '올 들어 10건에 이르는 국내 야생조류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과 최근 급격한 기온 강하, 11건으로 집계된 일본의 발생 상황 등을 감안하면 전국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며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매년 어김없이 찾아오는 고병원성 AI 소식에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 가금농가의 불안감도 증폭되고 있다. 불청객인 AI가 기승을 부리면 농가는 치명타를 입을 수 밖에 없고 경제적·사회적 손실도 무시할 수 없다.

방역당국은 가용 가능한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선제적 방역에 나서야 한다. 농장과 가축을 지키기 위한 농가의 차단방역도 한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된다. 소독이나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 수칙부터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금 상황을 '엄중'하다고 했다. 방역당국과 농가·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www.jnilbo.com m.jnilbo.com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 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